주제: 철학, 윤리학, 인식론

키워드: 가치, 객관, 주관

철학의 큰 줄기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등인데 가치론의 대표주자는 윤리학이다.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또 다른 가치론으로는 미학이 있으며 이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즉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학문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선미를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식론, 윤리학, 미학 정도가 되겠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하여 열거한다면,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드러낸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가치의 성격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불러온다.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철학에서 언제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는 ‘judgement’의 번역어로서 항상 명제에 대한 동사로서 쓰인다. 즉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것을 판단한다고 한다. 명제가 순수하게 사실(fact)에 관한 명제일 경우 우리는 사실 판단을 하게 되고, 명제가 가치(value)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1. ‘철수는 여자이다’
2. ‘철수의 키는 180츠가 넘는다’
3. ‘철수가 기부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4. ‘철수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5. ‘철수는 잘생겼다’

1과 2는 순수하게 사실에 관한 문장이고 우리는 이를 사실을 ‘기술(describe)’했다고 말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실이라는 말이 가치 판단의 결과가 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사실 판단의 결과 1은 참인 명제이지만 2는 거짓인 명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2가 사실에 대한 기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사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하게 기술의 대상을 뜻한다. 반면 3, 4, 5 는 순수하게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며, 이는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치 판단에 관한 명제는 주로 가치를 ‘규정(prescribe)’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을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따위로 이루어진다. (5는 미학의 가치로서 주로 탐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명제 3, 4는 대해서 얼핏 보기에 가치 판단이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근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실 판단에 비해 논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이에 관한 것이 이제 다루는 가치의 객관성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판단은 답이 항상 분명히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게, 사실 판단은 사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판단이기도 해서 우리의 판단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인식론과 관련한 것이어서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실 판단이라 함은 우리가 판단의 참값에 접근할 수 있든 말든 객관적으로 답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객관과 주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객관은 영어로 ob+ject 주관은 영어로 sub+ject이며 이는 모두 한자와 영어의 배열이 비슷하다. Ject는 project (투사하다) inject (주사하다) 등의 단어에서 보이듯 무언가를 향하는 의미를 가져 ‘보다’의 어근을 가진다. Ob와 sub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전통철학에서도 (나)아 와 비아를 구분하는 것 처럼 서양에서도 자신과 자신이 아닌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1인칭과 2~3인칭을 구분하는 영문법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여기서 sub는 자기 자신을( 한자로는 주인 주), ob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외부를 (한자로는 손님 객) 의미한다. 비교적 보편적인 관점인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것이란 자기 자신의 외부에 있어 본인의 존재, 인식등과는 상관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인 것이란 본인이 존재함으로서 존재하는 것 등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 관념론에서는 객관이 자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주관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 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 지구가 생기기도 전 빅뱅이 있을 때부터, 혹은 먼 미래에 모든 생명체가 멸망해 우주에 먼지만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살인은 나쁜 것이고 도둑질을 하면 안될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에 불과할까?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일상에 만연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의 홉스나 흄,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주관주의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 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가치에 대한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페리이다. 페리는 ‘가치의 일반 이론’에서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 라고 강조하면서,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만약 가치가 객관적이라면, 피자와 치킨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어느 한쪽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바보같아 보일 것이며, 우리는 주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주관적인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우열을 따지는 것은 이들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는 행위일 것이다. 가치에 대한 주관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치란 ‘주체’가 있음으로서 생성되고, 주체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객체가 되는 대상은 가치를 ‘획득한다’ 하지만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대상은 다시 가치를 잃는다.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는 말에서 ‘선’은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등의 단어를 쓰면 이는 객관적인 가치의 개념을 내포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욕구, 취향, 경향성 따위의 단어를 사용한다.) 선이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났음 을 암시하고 있다.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 ‘x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x가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을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주의의 입장은 현실에 사람들이 저마다 겪는 경험은 통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중요한 개념. 주관주의자들에게 가치는 주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반면 뒤에 나올 객관주의자들은 가치는 주체 없이, 아니 반드시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관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마다 다른 도덕 규칙이나 도덕의 딜레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옳은 행동과 서구권 문화에서 여성의 권장되는 행동은 다를 것이다. 마음 편하게 서구권의 도덕이 옳다고 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슬람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을 무너뜨릴만한 타당한 근거는 찾기 힘들다. 또 우리는 도덕 원칙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유명한 트롤리 사례를 떠올려보라. 1명을 칠 것인가 5명을 칠 것인가?)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인간은 자고로 질서를 필요로 해 절대적인 것을 찾는 존재이다.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나타난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일 뿐 대상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뉘앙스의 차이를 느꼈는가?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is) 혹은 없다(is not)라고 논한 반면 객관주의자들은 가치가 ‘존재한다(real)’ 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단어는 객관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번에 유물론적 일원론과 이원론의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존재에 관한 입장 차이를 생각해보라. 이원론은 마음이 물리적 세계와 별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물론적 일원론은 개념을 인정할지언정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로 얘기해보자면, 유물론적 일원론자는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높다고 한 이유는 이 자가 마음에 대해서만 이러한 이론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원론자는 가치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주관주의가 상대주의의 경향이 있다면 객관주의는 절대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면 옳고 그름들 사이의 위계 역시 존재할거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모두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객관주의는 주로 통치 체제와 관련해서 왕정이 존재하던 고대, 기독교 사회이던 중세 등에서 흥하곤 했다. (반면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득세하곤 한다.) 주관주의자들이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주의자들이 주관주의자들의 의견(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객관주의자들은 우리의 인식이 다를지라도 객관적인 가치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인식이나 판단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따르면 가치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는 단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한 사람인 셸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빨간 풍선의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라 여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셸러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치 그 자체는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셸러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빨간색 풍선을 보고 주관주의자가 ‘저 빨간색은 우리가 풍선을 봤기에 빨간색으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할 때 풍선이 사라져도 빨간색이라는 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즉 빨간색은 그것을 담고 있는 풍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관주의자가 ‘어떤 벌레는 저 풍선을 파란색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해도 셸러는 우리나 벌레의 인식이 상대적일 수는 있어도, 색이라는 속성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셸러는 가치가 파악되기 힘들어 인간이 상대주의에 빠지기 쉬움을 인정하나, 그렇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 열심히 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갈고 닦으라고 하겠지…)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나 선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인식이 높아지므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객관주의자들 중 (내가 나누기에) 소심한 객관주의자들은 객관적인 것이 존재할지언정 우리의 인식은 이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문단에 나온 과감한 객관주의자들은 우리가 가치를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가치를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인식의 상대성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육 등에 의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얼핏 들어도 상당히 교조적이라는 생각이…?

\*담지자: 철학 용어로서, 흔히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뜻함.